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은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아버지



오래전부터 강국 신 장군님께서 나라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멀리 앞을 내다보시 건설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오 시련의 고비를 겪고있던 고난의 고 국가발전의 용대한 설계도를 마련하였다.

피눈물의 12월 대국상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한해가 흘렀다. 지나온 열두달은 아버지께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절절한 영생기원의 마음이 뜨겁게 분출한 애국총정의 날이었다. 얼마나 훌륭한 인간, 얼마나 위대한 애국자를 평도자로 모시고 살았는가를 폐부로 절감한 1년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비범한 품격과 자질, 탁월한 정치실력, 고매한 덕망으로 하여 민족과 더불어 영생하신다. 장군님의 영생은 업적의 위대함에 있다. 그는 한평생 이민위천을 정치리념으로 삼으시고 나라의 강성과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어 조국과 민족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아버지이다.

애국헌신은 근 70성상의 장구한 세월 장군님의 위대한 생애와 평도사에 관통되어있는 삶의 근본이고 좌우명이었다. 민족의 흥망성쇠는 총대의 강약에 달려있다는 역사의 진리를 절감하신 장군님께서 총대를 틀어쥐고 민족의 존엄과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셨다.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끈질긴 제재와 압력,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공화국의 존엄과 민족적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신 장군님의 업적을 사람들은 영원히 잊을수 없다.

당시 일몰의 한 보도물이 《북조선은 지금 가혹한 운명에 처해있다.》고 평한것처럼 대국상과 련이은 자연재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으로 이 땅에 준엄한 정세가 조성

되었던 그때 우리가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는것을 몰라서 인민군대를 찾아가는것이 아니다, 지금은 그 어떤 피값을 치르더라도 조국을 지키고야야 한다, 나라를 지켜내지만 하면 생활을 푸는것은 문제가 아니다, 땅속노가 되었는가, 자주적인민이 되었는가, 오늘 문제는 바로 이렇게 선다고 하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전선길에 계신 장군님이시다. 초도와 판문점, 351고지, 1211고지를 비롯한 조국방선의 초소와 전호, 진지들마다에 그이의 선군장정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애국헌신의 빨치산식강행군으로 날과 달을 이으며 걸고걸으신 장군님의 사생결단의 선군길이 있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굳건히 수호될수 있었고 공화국은 강력한 군력을 가진 자위의 성새로 떠오르게 되었다. 당당한 군사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이른것이다. 선군정치의 위력에 대하여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 실천례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련합》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평도의 결과 북은 자주권과 존엄을 지켰을뿐아니라 막강한 군력과 경제발전의 도약대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일찌기 조선을 떨치리라는 룡남산의 맹세를 력사에 남기신 그때 장군님의 심층에는 강성국가라는 거목이 자리잡고있었다.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며 험난한 길을 헤쳐온 그이의 애국헌신의 장정은 이 땅우에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오래전부터 강국 신 장군님께서 나라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멀리 앞을 내다보시 건설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오 시련의 고비를 겪고있던 고난의 고 국가발전의 용대한 설계도를 마련하였다.

오래전부터 강국 신 장군님께서 나라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멀리 앞을 내다보시 건설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오 시련의 고비를 겪고있던 고난의 고 국가발전의 용대한 설계도를 마련하였다.

원수님께서 반공화국적대세력과 남조선호전세력이 북침을 향한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리는 준엄한 시기에 최대의 열점지대인 판문점과 조국의 최남단 무도와 장제도에서 강인담대한 령장의 미소를 지으시며 침략세력을 진멸케 하시었다. 겨레와 인민에게는 신심과 락관을 주고 반평화, 반통일 세력에게는 징벌의 선고를 내리신 원수님의 미소에는 해빛과도 같이 북과 남사이의 대결의 동로대를 녹여버리고 제2의 6.15시대를 열어갈 준은 의지가 어려있었다.

하기에 지난 2월 8일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는 《김정은평도자의 활짝 터뜨리는 미소, 그것은 북미대결전지 승리로 결속되고있음을 보여주는 승리의 여유이다.》라고 하였다.

민족자주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 환하신 미소에서 이 나라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한 태양의 미소를 보옵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철

12월에서 12월까지, 이는 지나간 력사의 한순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사람들은 조선에서 또 한번의 위업을 모시어 민족자주위업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있음을 뜨겁게 절감했다. 피눈물의 바다에서 결연히 일어난 조국인민들이 평도자와 어깨를 걸고 팔을 끼고 걸은 길은 변함없는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자주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이어가려는 평도자의 발걸음을 따라 온 나라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올해의 첫 아침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주제105땅조산단을 찾으신 때로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계절 가림없이 수많은 인민군부대들과 초소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전선시찰은 장군님께서 맡기 고가신 내 나라, 내 조국을 굳건히 수호할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보여준 력사적인 계기였다.

국력이 약하면 조국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다는 의지를 안으시고 1211고지와 351고지, 대덕산, 오성산, 초도, 판문점 등 최전연초소들을 찾고 찾으시던 장군님을 생각하시며 원수님께서 판문점과 초도, 무도와 장제도, 동부전선의 초소와 고지, 전호들

를 수호하시었다. 김정일 평도자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받들고 북남수뇌상봉들을 마련하시어 조선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민족의 어머니이시다. 이이께서 떨치신 선군정치와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조선의 대외적권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김정은평도자는 세계자주화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투사이시다. 이이께서 세계자주화위업과 세계평화를 위해 쌓아올린 특출한 공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12월에서 12월까지, 이는 지나간 력사의 한순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사람들은 조선에서 또 한번의 위업을 모시어 민족자주위업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있음을 뜨겁게 절감했다. 피눈물의 바다에서 결연히 일어난 조국인민들이 평도자와 어깨를 걸고 팔을 끼고 걸은 길은 변함없는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자주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이어가려는 평도자의 발걸음을 따라 온 나라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올해의 첫 아침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주제105땅조산단을 찾으신 때로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계절 가림없이 수많은 인민군부대들과 초소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전선시찰은 장군님께서 맡기 고가신 내 나라, 내 조국을 굳건히 수호할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보여준 력사적인 계기였다.

국력이 약하면 조국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다는 의지를 안으시고 1211고지와 351고지, 대덕산, 오성산, 초도, 판문점 등 최전연초소들을 찾고 찾으시던 장군님을 생각하시며 원수님께서 판문점과 초도, 무도와 장제도, 동부전선의 초소와 고지, 전호들

를 수호하시었다. 김정일 평도자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받들고 북남수뇌상봉들을 마련하시어 조선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민족의 어머니이시다. 이이께서 떨치신 선군정치와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조선의 대외적권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김정은평도자는 세계자주화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투사이시다. 이이께서 세계자주화위업과 세계평화를 위해 쌓아올린 특출한 공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인 평양상봉들이 마련되고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이 채택되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6.15시대, 평화번영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것이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숭고한 민족애로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한 중대조치를 취하여 민족의 통일열기를 고조시키고 반공과 질서, 대결과 불신이 두려웠던 조국강토에 민족적단합과 화해,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신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겨레는 잊지 못한다. 남녘의 동포들은 민족대국상에 비감을 금치 못하며 국방위원장님께서 오래 계시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끝까지 꽃피우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깊은 애도의 마음을 토로 하였으며 한 재미동포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국가의 만년대계를 세우시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발표하시어 평화통일의 리정표를 세워주신 장군님의 업적은 조국과 더불어 천년만년 길이 빛날것이다.》라고 하였다.

참으로 김정일 장군님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한평생 오로지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부강번영,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어머니이셨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장군님의 위업은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이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이 땅에 흐르는 숭고한 총정과 도덕의력의 새력사를 체험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참으로 김정일 장군님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한평생 오로지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부강번영,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어머니이셨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장군님의 위업은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이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이 땅에 흐르는 숭고한 총정과 도덕의력의 새력사를 체험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참으로 김정일 장군님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한평생 오로지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부강번영,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어머니이셨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장군님의 위업은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이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이 땅에 흐르는 숭고한 총정과 도덕의력의 새력사를 체험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12월 15일을 맞고보니 한해전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 김정일장군님께서 이 나라 인민들에게 보내신 축복의 미소가 떠오른다. 그날 한겨울의 맹한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음악보보체와 개집을 앞둔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기자들이 훌륭히 꾸러진데 대하여 매우 기뻐하시며 온 하루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었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지난 수십년동안 체계적으로 수집한 음악작품들을 모두 보내주셨으니 그것을 입력시켜 우리 인민들이 널리 감상하고 리용할수 있게 하라고 이리시였고 인민들의 늘어나는 상품수요를 보다 원만한 충족시킬수 있게 상품들을 가득히 채워놓은것을 보니 추운 날인데도 마음이 후더워진다고 기쁨속에 말씀하시었다. 그런데 그처럼 환하신 미소 다시 뵈지 못하게 될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불과 이틀후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접쌍인

정신육체적파로로 달리는 련차안에서 순직하시었다는 뜻밖의 비보는 인민들의 가슴을 세차게 허비였다. 온 강산은 눈물의 바다가 되었다. 인민들앞에선 늘 미소를 지으시였지만 참기 어려운 육체적고통을 안고 계신 장군님. 다시는 보일수 없는 그 미소를 생각하

자로운 미소를 그리며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인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우리 장군님의 미소에는 그이의 고매한 품성과 덕성뿐아니라 강의를 의미와 담력도 그대로 담겨져있다고 하시며 장군님과 영결하는 겨레의 마음속

에 장군님의 영원한 미소를 안겨주시었다. 나라의 곳곳에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도록 하시어 인자한 그 미소는 언제나 인민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되었다.

2월에서 12월까지의 이날 조국평우에 현대적인 생거리와 공원, 유회장과 산기지들이 일터설 때마다 기쁨속에 환하게 지으시던 원수님의 미소는 장군님의 사랑의 미소 그대로였다. 새로 꾸러진 공원과 유원지에서 휴식을 즐기는 인민들에게 미소를 띄우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인민들은 장군님의 그 미소를 보았다. 본사기자 리경철

원수님께서 반공화국적대세력과 남조선호전세력이 북침을 향한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리는 준엄한 시기에 최대의 열점지대인 판문점과 조국의 최남단 무도와 장제도에서 강인담대한 령장의 미소를 지으시며 침략세력을 진멸케 하시었다. 겨레와 인민에게는 신심과 락관을 주고 반평화, 반통일 세력에게는 징벌의 선고를 내리신 원수님의 미소에는 해빛과도 같이 북과 남사이의 대결의 동로대를 녹여버리고 제2의 6.15시대를 열어갈 준은 의지가 어려있었다.

하기에 지난 2월 8일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는 《김정은평도자의 활짝 터뜨리는 미소, 그것은 북미대결전지 승리로 결속되고있음을 보여주는 승리의 여유이다.》라고 하였다.

민족자주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 환하신 미소에서 이 나라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한 태양의 미소를 보옵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철

국력이 약하면 조국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다는 의지를 안으시고 1211고지와 351고지, 대덕산, 오성산, 초도, 판문점 등 최전연초소들을 찾고 찾으시던 장군님을 생각하시며 원수님께서 판문점과 초도, 무도와 장제도, 동부전선의 초소와 고지, 전호들

를 수호하시었다. 김정일 평도자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받들고 북남수뇌상봉들을 마련하시어 조선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민족의 어머니이시다. 이이께서 떨치신 선군정치와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조선의 대외적권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김정은평도자는 세계자주화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투사이시다. 이이께서 세계자주화위업과 세계평화를 위해 쌓아올린 특출한 공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12월에서 12월까지, 이는 지나간 력사의 한순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사람들은 조선에서 또 한번의 위업을 모시어 민족자주위업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있음을 뜨겁게 절감했다. 피눈물의 바다에서 결연히 일어난 조국인민들이 평도자와 어깨를 걸고 팔을 끼고 걸은 길은 변함없는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자주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이어가려는 평도자의 발걸음을 따라 온 나라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올해의 첫 아침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주제105땅조산단을 찾으신 때로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계절 가림없이 수많은 인민군부대들과 초소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전선시찰은 장군님께서 맡기 고가신 내 나라, 내 조국을 굳건히 수호할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보여준 력사적인 계기였다.

국력이 약하면 조국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다는 의지를 안으시고 1211고지와 351고지, 대덕산, 오성산, 초도, 판문점 등 최전연초소들을 찾고 찾으시던 장군님을 생각하시며 원수님께서 판문점과 초도, 무도와 장제도, 동부전선의 초소와 고지, 전호들

를 수호하시었다. 김정일 평도자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받들고 북남수뇌상봉들을 마련하시어 조선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민족의 어머니이시다. 이이께서 떨치신 선군정치와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조선의 대외적권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김정은평도자는 세계자주화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투사이시다. 이이께서 세계자주화위업과 세계평화를 위해 쌓아올린 특출한 공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국력이 약하면 조국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다는 의지를 안으시고 1211고지와 351고지, 대덕산, 오성산, 초도, 판문점 등 최전연초소들을 찾고 찾으시던 장군님을 생각하시며 원수님께서 판문점과 초도, 무도와 장제도, 동부전선의 초소와 고지, 전호들

를 수호하시었다. 김정일 평도자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받들고 북남수뇌상봉들을 마련하시어 조선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민족의 어머니이시다. 이이께서 떨치신 선군정치와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조선의 대외적권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김정은평도자는 세계자주화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투사이시다. 이이께서 세계자주화위업과 세계평화를 위해 쌓아올린 특출한 공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국력이 약하면 조국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다는 의지를 안으시고 1211고지와 351고지, 대덕산, 오성산, 초도, 판문점 등 최전연초소들을 찾고 찾으시던 장군님을 생각하시며 원수님께서 판문점과 초도, 무도와 장제도, 동부전선의 초소와 고지, 전호들

를 수호하시었다. 김정일 평도자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받들고 북남수뇌상봉들을 마련하시어 조선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민족의 어머니이시다. 이이께서 떨치신 선군정치와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조선의 대외적권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김정은평도자는 세계자주화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투사이시다. 이이께서 세계자주화위업과 세계평화를 위해 쌓아올린 특출한 공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국력이 약하면 조국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다는 의지를 안으시고 1211고지와 351고지, 대덕산, 오성산, 초도, 판문점 등 최전연초소들을 찾고 찾으시던 장군님을 생각하시며 원수님께서 판문점과 초도, 무도와 장제도, 동부전선의 초소와 고지, 전호들

를 수호하시었다. 김정일 평도자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받들고 북남수뇌상봉들을 마련하시어 조선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민족의 어머니이시다. 이이께서 떨치신 선군정치와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조선의 대외적권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김정은평도자는 세계자주화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투사이시다. 이이께서 세계자주화위업과 세계평화를 위해 쌓아올린 특출한 공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애국위업은 즐기차게

애국헌신의 빨치산식강행군으로 날과 달을 이으며 걸고걸으신 장군님의 사생결단의 선군길이 있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굳건히 수호될수 있었고 공화국은 강력한 군력을 가진 자위의 성새로 떠오르게 되었다. 당당한 군사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이른것이다. 선군정치의 위력에 대하여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 실천례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련합》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평도의 결과 북은 자주권과 존엄을 지켰을뿐아니라 막강한 군력과 경제발전의 도약대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일찌기 조선을 떨치리라는 룡남산의 맹세를 력사에 남기신 그때 장군님의 심층에는 강성국가라는 거목이 자리잡고있었다.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며 험난한 길을 헤쳐온 그이의 애국헌신의 장정은 이 땅우에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오래전부터 강국 신 장군님께서 나라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멀리 앞을 내다보시 건설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오 시련의 고비를 겪고있던 고난의 고 국가발전의 용대한 설계도를 마련하였다.

오래전부터 강국 신 장군님께서 나라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멀리 앞을 내다보시 건설을 위한 준비를 갖추어오 시련의 고비를 겪고있던 고난의 고 국가발전의 용대한 설계도를 마련하였다.

국력이 약하면 조국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다는 의지를 안으시고 1211고지와 351고지, 대덕산, 오성산, 초도, 판문점 등 최전연초소들을 찾고 찾으시던 장군님을 생각하시며 원수님께서 판문점과 초도, 무도와 장제도, 동부전선의 초소와 고지, 전호들

를 수호하시었다. 김정일 평도자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받들고 북남수뇌상봉들을 마련하시어 조선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민족의 어머니이시다. 이이께서 떨치신 선군정치와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조선의 대외적권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김정은평도자는 세계자주화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투사이시다. 이이께서 세계자주화위업과 세계평화를 위해 쌓아올린 특출한 공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국력이 약하면 조국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다는 의지를 안으시고 1211고지와 351고지, 대덕산, 오성산, 초도, 판문점 등 최전연초소들을 찾고 찾으시던 장군님을 생각하시며 원수님께서 판문점과 초도, 무도와 장제도, 동부전선의 초소와 고지, 전호들

를 수호하시었다. 김정일 평도자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받들고 북남수뇌상봉들을 마련하시어 조선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민족의 어머니이시다. 이이께서 떨치신 선군정치와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조선의 대외적권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김정은평도자는 세계자주화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투사이시다. 이이께서 세계자주화위업과 세계평화를 위해 쌓아올린 특출한 공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국력이 약하면 조국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다는 의지를 안으시고 1211고지와 351고지, 대덕산, 오성산, 초도, 판문점 등 최전연초소들을 찾고 찾으시던 장군님을 생각하시며 원수님께서 판문점과 초도, 무도와 장제도, 동부전선의 초소와 고지, 전호들

를 수호하시었다. 김정일 평도자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받들고 북남수뇌상봉들을 마련하시어 조선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민족의 어머니이시다. 이이께서 떨치신 선군정치와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조선의 대외적권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김정은평도자는 세계자주화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투사이시다. 이이께서 세계자주화위업과 세계평화를 위해 쌓아올린 특출한 공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국력이 약하면 조국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다는 의지를 안으시고 1211고지와 351고지, 대덕산, 오성산, 초도, 판문점 등 최전연초소들을 찾고 찾으시던 장군님을 생각하시며 원수님께서 판문점과 초도, 무도와 장제도, 동부전선의 초소와 고지, 전호들

가 훌륭히 마련된것은 아버지장군님의 현명한 평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으신 씨앗들을 자랑한 현실로 꽃피우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다. 그의 정력적인 평도에 의하여 창건거리와 룡리안민유원지, 평양인민속공원, 류경원과 인민외빈상장, 평양산림 유산종양연구소와 통일거리운동센터 등 인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보장해주는 건축물들이 훌륭히 완공되었다.

평양양말공장 남양양말직장과 락랑감자공공공장, 평양양곡공장 옥당직장과 강병이가공 및 효소생산공정,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풍우유가무생산공정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의 부분별생산기지들이 새로 가동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타오른 때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중요부문 200여개 대상의 생산공정이 현대화되고 근 100개 단위에서 통합생산체제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이 경이적인 성과들은

가 훌륭히 마련된것은 아버지장군님의 현명한 평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으신 씨앗들을 자랑한 현실로 꽃피우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다. 그의 정력적인 평도에 의하여 창건거리와 룡리안민유원지, 평양인민속공원, 류경원과 인민외빈상장, 평양산림 유산종양연구소와 통일거리운동센터 등 인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보장해주는 건축물들이 훌륭히 완공되었다.

평양양말공장 남양양말직장과 락랑감자공공공장, 평양양곡공장 옥당직장과 강병이가공 및 효소생산공정,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풍우유가무생산공정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의 부분별생산기지들이 새로 가동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타오른 때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중요부문 200여개 대상의 생산공정이 현대화되고 근 100개 단위에서 통합생산체제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이 경이적인 성과들은

가 훌륭히 마련된것은 아버지장군님의 현명한 평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으신 씨앗들을 자랑한 현실로 꽃피우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다. 그의 정력적인 평도에 의하여 창건거리와 룡리안민유원지, 평양인민속공원, 류경원과 인민외빈상장, 평양산림 유산종양연구소와 통일거리운동센터 등 인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보장해주는 건축물들이 훌륭히 완공되었다.

평양양말공장 남양양말직장과 락랑감자공공공장, 평양양곡공장 옥당직장과 강병이가공 및 효소생산공정,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풍우유가무생산공정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의 부분별생산기지들이 새로 가동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타오른 때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중요부문 200여개 대상의 생산공정이 현대화되고 근 100개 단위에서 통합생산체제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이 경이적인 성과들은

가 훌륭히 마련된것은 아버지장군님의 현명한 평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으신 씨앗들을 자랑한 현실로 꽃피우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다. 그의 정력적인 평도에 의하여 창건거리와 룡리안민유원지, 평양인민속공원, 류경원과 인민외빈상장, 평양산림 유산종양연구소와 통일거리운동센터 등 인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보장해주는 건축물들이 훌륭히 완공되었다.

평양양말공장 남양양말직장과 락랑감자공공공장, 평양양곡공장 옥당직장과 강병이가공 및 효소생산공정,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풍우유가무생산공정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의 부분별생산기지들이 새로 가동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타오른 때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중요부문 200여개 대상의 생산공정이 현대화되고 근 100개 단위에서 통합생산체제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이 경이적인 성과들은

가 훌륭히 마련된것은 아버지장군님의 현명한 평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으신 씨앗들을 자랑한 현실로 꽃피우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다. 그의 정력적인 평도에 의하여 창건거리와 룡리안민유원지, 평양인민속공원, 류경원과 인민외빈상장, 평양산림 유산종양연구소와 통일거리운동센터 등 인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보장해주는 건축물들이 훌륭히 완공되었다.

평양양말공장 남양양말직장과 락랑감자공공공장, 평양양곡공장 옥당직장과 강병이가공 및 효소생산공정,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풍우유가무생산공정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의 부분별생산기지들이 새로 가동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타오른 때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중요부문 200여개 대상의 생산공정이 현대화되고 근 100개 단위에서 통합생산체제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빛나게 실현하였다. 이 경이적인 성과들은

가 훌륭히 마련된것은 아버지장군님의 현명한 평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으신 씨앗들을 자랑한 현실로 꽃피우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다. 그의 정력적인 평도에 의하여 창건거리와 룡리안민유원지, 평양인민속공원, 류경원과 인민외빈상장, 평양산림 유산종양연구소와 통일거리운동센터 등 인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보장해주는 건축물들이 훌륭히 완공되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스위스, 체코, 이란에서 토론회, 회고모임,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보여주는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조선은 피눈물로 말한다》를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는 통일로씨야당 나호드까지부, 김정일대원수

회고 스위스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 체코태권도협회, 이란국제태권도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평도자께서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갑자기 서거하신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청천벽력적이었으며 가장 큰 손실이었다. 김정일평도자께서는 선군정치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랄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국과 사회주의, 평화

행복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셨다. 이이께서는 조선을 강위력한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이란을 비롯한 진보적나라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었다. 이이께서 세계자주화위업과 세계평화를 위해 쌓아올린 특출한 공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행복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셨다. 이이께서는 조선을 강위력한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이란을 비롯한 진보적나라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었다. 이이께서 세계자주화위업과 세계평화를 위해 쌓아올린 특출한 공적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혼을 철저히 관철하자!

장 군 님 의 거 레 사 랑 은 영 원 하 리

— 위 대 한 장 군 님 의 서 거 1 뚝 에 즈 음 하 여 —

박 철, 김 태 롱

날과 달이 흘러 1년이 되었는데
아버이를 잃고
피눈물 흐르던 이 땅
사무치는 그리움
가슴마다 쌓아주며 눈내린다

장군님모습
못 잊어 만수대에 높이 모시고
우리 살아오지 않았던가

통일을 위한 그 헌신
생각하고 생각하며
그리워 장군님영상
수도의 통일거리에 밝게 모시고
그이와 함께
통일의 길 걸어오지 않았던가

겨울을 이어 봄, 여름
눈이여 너 말해다오
네가 그이의 어깨우에
비가 되어 내릴 땀
겨레를 풀어 짓고졌던 그이
웃자라

자연의 흐름따라 찾아온
달과 달이 아니었다
그이 이어가신 자옥따라
그이 이룩하신 업적을 안고
이 땅에 밝아온 달과 달

잊은적 없으랴
분계연선지구의 한 농촌마을
고향을 남녘에 둔채
헌서리가 질어가는 녀인
그를 만나시던 비내리던 날을

조국은 반드시 통일된다고
그날까지 늙지 말라고
힘을 주고 신심을 주실 때
뜨락을 적시던 비방울은
녀인이 흘린 걱정 눈물

세월은 멀리 흘러
그날도 세월따라 갔으면만
이해도 내리는 봄술비에
그날의 녀인처럼
가슴을 적셔온 우리

어이 눈내리고 비오는 날만
이랴
꽃이 피면 그 꽃에서
단풍이 들면 그 단풍에서
그이 배후신 겨레사랑을
다시금 새기며
목이 메어 번져온 날과 달들

무대는 있어도 참노래가 없고
명성은 있어도 안길 품이 그림던
이역에 사는 남녘의 너가수
장군님 따뜻이 안아준 그 4월은
가수만 아닌 온 겨레가 안고산
달

그렇게 겨레는 살아왔으랴
수해물 입은 남녘동포들에게
천히 보내주신 구호물자
눈물속에 받아안던 그날들을
눈물속에 다시 그려보며

장군님 통일의 뜻 안고왔던
북녘의 응원단
그 은정 못내 그리워
다대포항의 출렁이는 물결우에
그 나날을 다시다시 펼쳐보며

오로지 애오라지
겨레를 위해 통일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바치신분
그 길에서 겪으시는 천만고생을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신분

그 한생 더듬어 더듬어
그이의 숨결 그이의 자옥
높뛰는 심장에 있고
두손으로 쓸어보며 살아온
날과 날 달과 달들이여

하늘을 배운 눈송이
사연도 깊은 눈이여
너 고요히 내려내려
그이의 사색을 지켜드렸다면
알지 않느냐 그이 바쳐오신
그 심혈 그 로고를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고
심장을 불태워 한자한자
불멸의 통일대강을 집필하시며
지새시던 밤과 밤들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신
금옥같은 명저들을 펼쳐들고
겨레의 삶에 통일희망을 지퍼
주신
그이 공헌 생각하며
잠 못든 이해의 밤과 밤들이었다

보석은 셋을수록 빛이 나고
은혜는 누릴수록 뜨겁다 했거늘
달과 달우에 더더욱 사무치는
그이의 은정에
눈시울 다시 적셔온 우리

누가 말했다나
사랑중의 사랑은
민족을 지켜주는 사랑이라고
겨레를 보살펴주는 사랑이라고

사랑이 없이는
사생결단의 피어린 각오없이는
한치도 갈수 없는 길
겨레사랑 그 하나를 지니고
장군님 걸어오신 선군의 길

한두해도 아니고 한생토록
민족수호의 최전선에 계시며
철령과 오성산, 초도에
민족의 안녕을 위한
불매의 성세를 쌓으신 그이
드시던 한덩이 꿩기밥

파도에 젖어들던 야전복자락
눈앞에 떠올리며
누구나 목매여 노래했으랴
그 길에서 그 길에서
오늘도 이 땅에 평화가 온다고

가슴에 안겨있었으랴
선군장정 통일장정의 그 길
그이 용약
분렬의 상징 판문점으로 이어
가신
력사의 그날은

한여름에도 서리가 불리고
정적속에 폭풍이 흐르는 곳
이름만 불려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위험천만한 그곳에 나가신 그이

아버이수령님친필비를
생각깊이 바라보시던 장군님
쩌렁- 강토를 뒤흔드신 말씀
-나는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들
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어제런듯 세월우에 빛나는
그날의 그이모습 우리러
판문점구내를
삼천리에 펼쳐고 걸어온
우리 인민 우리 겨레

흘려간 달과 달이 가슴후더워
내리는 눈 송이송이
두손에 받아보아 이리도 뜨거
운가
너 뜨거운 눈이여
이 몸을 이끌어가다오
이해의 그 6월로 그 10월로

세월이 갈수록 더 소중해
반통일의 광풍 몰아칠수록 더
귀중해
우리 인민들
남녘과 해외동포들
어떻게 6월과 10월 맞고 보냈
느냐

업적중 업적이여라
반세기가 넘도록
민족이 피를 흘리던 대결과
불신
황황 불사르고
화해와 단합의 새시대
장군님 펼쳐주신 6.15시대는

겨레의 피멍이 진 가슴
분렬의 쓰라린 아픔을
하나하나 가져주던 그 감동
부부는 통일의 꿈과 희망에
백두에서 한나까지

삼천리가 들먹이던 그 환희
북녘에선 그 나날의 감동을
안고
뜻깊은 기념대회를 열고
남녘에선 그 나날의 환희를
터쳐
기념식과 결의대회를 열고...

이젠 6.15를 떠나 살수 없어
이 땅에 6.15를 안아오신
겨레의 아버지
장군님의 영상 심장에 모시고
복과 남, 해외가
한마음한뜻되어 들끓은 6월

그날 몸은 비록 남녘에 있었
어도
아버이에 대한 고마움
한없는 감사에
12년전 그날처럼
6월의 하늘 평양의 하늘아래
누구나 있었으랴

장군님 마련해주신 10.4선언
뜻깊은 그 10월엔
복과 남의 평화현력
그 래일을 그려보며
멀리 해외에 떨어져있어도
평양의 하늘아래 있었으랴

- 6.15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 이룩하자!
- 10.4선언의 기치 변함없이
민족의 평화와 번영 안아오자!

남녘에서 해외에서
퍼터지게 부르며 웨치던 합성
사는 곳은 서로 달랐어도
통일로 불리는 녀
장군님의 품에 두고 살아온
겨레

돌아보시라
평양의 국가선물관
그러면 알수 있으리
퍼터운 가슴들에 모시고 산
우리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홍모
방과 방, 선물과 선물에서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장군님 따를 번치 않을 충정
한 해외동포가
이에게 삼가 올린 천년옥돌바위
그 선물에 어려있으랴

우리 민족끼리 뜻으로만 살것
다고
6.15의 시간표를 따라
통일의 기적소리 울려달라고
간절히 아뢰는 남녘의 마음

정성다해 드린 선물
시계와 열차모형에 담겨있으랴

겨레를 한품에 안으시고
장군님 배후신 사랑과 은정
태양처럼 뜨거워
겨레를 위해 쌓으신 공적
하늘처럼 높고높아

그 하늘아래
그 태양아래
우리 인민 우리 겨레
변함없이 곳곳이 엮어온
삶의 한해 삼백에순다섯날이여

민족의 아버이를 잃어
모시지 못한 한해가 아니다
장군님을 받들고 살던
그 날과 달의 해와 별이
우리 삶의 하늘에
찬란히 빛을 뿌린 한해!

운명의 숨결이 되어주시고
통일의 구성으로 빛나시던
그이
정녕 그이를 떠나신
하루도 한시도 살수가 없어
그 품에 더 가까이
온 겨레가 안겨산 한해!

그래서 아니라
아버이장군님을 우리러
남녘과 해외의 동포들
누를길 없는 불같은 진정
저마다 인터넷에 올린것은

-이런 위대한분은
세상에 눈을 씻고 찾아보아
도 없다
-천만년 인류력사에 칭송되실
김정일장군님

물노니 력사여 대답해보라
배후신 사랑 쌓으신 업적에
이렇듯 7천만 온 겨레가
령도자로 영원히 받든분
그 언제 있어본적 있었던가

그이를 모시여
장군님의 겨레사랑은
이 땅에 더 즐기차게 흘렸고
그이가 계시여
장군님의 통일옹지는
더욱 찬란히 꽃피었거니

남녘에서 해외에서
조문의 화환 정히 안고 찾아온
동포들 한명한명
그이 따듯이 손잡아주실 때
겨레는 장군님의 사랑
그 손길에서 뜨겁게 느끼었고

민족의 운명을 안으시고
거룩한 자옥자옥
판문점에 찍어가시던 그 모습
에서
오늘도 통일의 진두에 서계시는
장군님모습 승엄히 비웠으랴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란다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온 겨레의 심장을 울리신
태양철날 그이의 연설이여

력사적인 그날의 연설은
한생을 다해 우리 장군님
민족의 가슴에 열어오신
조국통일의 그 길을
더 밝게 더 넓게 펼쳐놓았으랴

아버이장군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엔 통일의 대로 열어
주시고
저 황해엔 민족의 대경사
《광명성-3》호인공지구위성을
올려
우주에 세계만방에
민족의 존엄 펼쳐주신 원수님

우리러우리러
김정은원수님 그이의
정신과 기질, 덕담과 인품은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라고
온 겨레가 다함없는 격정
터치고터치며 산 이해!

이제 머지않아 이해도 가고
이 땅엔 새해가 오고
해와 해는 바뀌리라
허나 10년 100년 흘러도
그 10년 그 100년
장군님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장군님 한평생
열과 정으로 덥혀오신
그 겨레사랑의 해와 달과 날은
김정은원수님 손길따라
이 땅에 반드시 밝아오리라
조국통일의 해와 달과 날로!

아, 눈이 내린다
펼쳐지고 펼쳐질 무궁할 세월
우리 민족이 안겨살 품
장군님의 영원한 겨레사랑
그 불멸할 사랑을 안고
하늘땅 가득 뜨거운 눈 내린다

이해의 12월에는 류달리도
흰눈이 많이 내리고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
로 하얗없이 펄펄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느라니 추억이
저절로 갈마들어온다.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12월의 눈은 한갖 자연의 눈
만이 아니다.
1년전 12월에도 이렇듯 맑
은 눈이 내렸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눈을
풍작의 징조, 축복의 상징으
로 일러왔다.
그래서 누구나 눈이 오면
희망과 광만의 감정을 더해
며 미소를 짓기도 하고 눈길
을 걸으며 생의 자옥을 더듬
어보기도 한다.
더우기 12월에 내리는 눈
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새

수 필 1 2 월 의 눈

해의 희망을 더해주는것으로
하여 특별한 정서를 불러일
으켜준다.
그러나 2011년 12월의 눈
은 어땠던가.
민족의 아버이를 잃은 슬
픔이 눈물의 바다를 이루고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었던
1년전 그날, 우리 겨레의 눈
물인양 류달리 맑은 눈이 평
평 내렸다.
조의식장의 화환들을 숨
웃으로 덮으며 쏟아지는 눈
송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장군님께서 한생 맞으신 찬
눈비가 너무도 가슴에 사무쳐
와 눈물을 흘리고 흘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하던
퍼눈물의 2011년 12월 28일
에는 또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던가.
그날에 80mm나 되는 많
은 눈이 내렸는데 이것은
1933년 이래, 다시말하여
78년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
린것으로 된다고 한다.
하얗게 내리는 눈발사이로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리러
머 오실 때도 눈보라계절에
모시고 전생애를 인민을 위
한 눈보라한생으로 이어오신
그이께서 떠나가시는 마지막
날까지도 찬눈을 맞으시는데
이 너무도 절통하여 사람들

은 더더욱 목놓아올였다.
사람도 울고 하늘도 운
1년전 12월이었다.
그때부터였던가. 사람들
은 눈이 내릴 때마다 못 잊
을 12월의 눈을 떠올린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
움으로 가슴 불래운다.
이해의 12월에도 산과 들
에 소복이 내려쌓이는 함박
눈을 바라보느라니 흰눈철
학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
으시고 바로 그 흰눈처럼
한생을 강그리 다 바쳐오신
장군님의 무한한 순결의 세
계가 다시금 안겨와 격정을
금할수 없다.

추위가 닥쳐오면 소리없이
내리고내려 대지를 포근히
품어안아주는 흰눈처럼, 따
뜻한 봄날이 오면 한몸 고스
란히 녹여 대지에 자양분으
로 스며드는 흰눈처럼 조국
과 민족을 위해 한생을 사신
아버이장군님이시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천만가
지 꽃은 많아도 목화꽃을 부
달리 사랑하시었고 내리는 흰
눈을 맞으시며 폭포치는 비날
론을 그려보시었던것이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에
서 기쁨을 찾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무수한 헌신의
나날을 이루다 말할수 없다.
그 나날가운데는 력사적
인 6월의 평양상봉을 몇달
앞두고 백두산에 오르신 날
도 있었으니 바로 그날도 함
박눈이 펄펄 내리는 날이었
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장장
반세기이상이나 이 땅을 열
군 분렬의 차디찬 눈서리를
가시고 통일의 따듯한 봄기
운을 안아오실 신념과 의지
를 백두산의 솟을길우에 새
기시었다.

장군님께서 한평생 그리도
많이 맞으신 눈, 장군님 떠
나가신 날부터 더욱더 하얗
없이 쏟아져내린 눈.
12월의 눈은 산과 들에
만 내리지 않는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이 나라 인민의 마
음속에 조용히 내려쌓인
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통일
강성국가를 일떠세울 의지를
굳혀주며.
자연의 눈은 기온이 오르
면 녹아 없어지지만 겨레의
마음속에 소복이 내려쌓이
는 12월의 눈, 그리움의 눈
은 영원히 녹지 않는다.
본시기자 김춘경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수놓아진 위대한 한생

외 국 인 들 이 높이 칭 송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
민을 위하여 끝없이 헌신하
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는 공화
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속에서
뜨겁게 울려나왔다.
나이제이라 전 국회의원 부
의장 이브라힘 만투는 다음
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
위전을 좌우명으로 삼으시
고 인민을 위한 헌지지도
의 길을 끊임없이 이으시
었다.
그이의 령도의 자옥은 인
민이 사는 모든 곳에 뜨겁게
어려있다.
새 살림집과 공원, 상점,
식당을 비롯한 곳곳을 찾으
시어도 그이의 첫 물음은 인
민들이 좋아하는가 하는 물
음이었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그이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고있는것
이다.
인민의 행복에서 더
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김정일동지와 같이
령도자를 인류사는 알지 못
하고있다.
김정일동지의 혁명령도사
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
적인류에게 있어서 빛나는
귀감으로 된다.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
장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
시장 비슈와나스는 흥분
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
였다.
평양시에 현대적으로 일
본시기자

편진 고층살림집들,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들과 수많
은 기념비적건축물마다
에 그이의 숭고한 사랑이
거려있다.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사
상과 현명한 령도가 자랑찬
결실을 가져왔다.
에리트레 오라스콤전기통신
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리시장
나기브 싸위리쓰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
모심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의 접점을 받
으면서 그이의 인간미에 완
전히 매혹되었다.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
져있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었다.
평양아린이식료품공장을
돌아보고 깊은 감동을 받
고있다.
조선인민은 장군님의 한생
의 업적을 합치면 인민뿐이
라고 노래에 담아 절절히 부
르며 그이의 유훈을 관철해
가고있다.
참으로 장군님의 한생은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으
로 수놓아진 위대한 한생이
였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
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본시기자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운반로켓트 《은하-3》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운반로켓트 《은하-3》은 주제101(2012)년 12월 12일 9시 49분 46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27초만인 9시 59분 13초에 《광명성-3》호 2호기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광명성-3》호 2호기는 97.4°의 궤도경사각으로 근지점고도 499.7km, 원지점고도 584.18km인 극궤도를 돌고있으며 주기는 95분 29초이다.

과학기술위성인 《광명성-3》호 2호기에는 지구관측에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

재들이 설치되어있다. 《광명성-3》호 2호기발사의 완전성공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자랑찬 결실이며 자주적인 평화적우주개발정책을 당당히 행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온 나라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차넘치고있는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쏘올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주제101(2012)년 12월 12일 평양

광, 파르릉—
2012년 12월 12일 9시 49분, 천지를 진동하는 동음속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올랐다. 세계의 이목은 삼시에 만리대공으로 치솟는 《광명성-3》호 2호기를 실은 100%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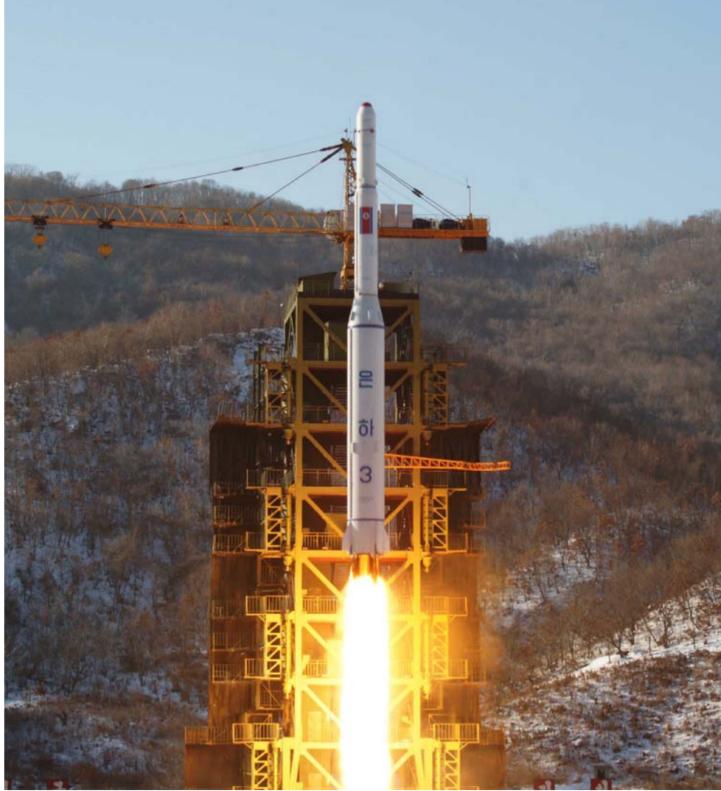
운반로켓트 《은하-3》으로 쏘아 올랐다.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장쾌한 순간이었다. 위성 《광명성-3》호의 성과적 발사는 우주에 닿은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의 자랑찬 표시이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인공지구위성은 해당 나라의 종합적국력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지구상에는 풍부한 자원과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아직 우주를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이 많다. 위성제작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도 발사체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들도 적지 않은것이 오늘 현실이다. 이번의 위성발사를 통하여 공화국은 우주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와도 당당히 어깨를 겨룰수 있는 우주산업국으로 상승하였다. 이번엔 단행한 위성발사의 거대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것이다. 우주산업은 최첨단과학기술과 각이한 기술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량에 결합된 공업기술력의 최절정으로 되고있다. 지구상에는 공화국처럼 그토록 어려운 조건에서도 짧은 기간에 과학기술의 핵심분야이자 공업발전의 견인기인 우주산업을 일떠세운 강국은 일찌기 없었다. 실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는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다. 한세기전의 조건은 어두운 하늘에 해가 뜨지 않는 망국의 동토대, 현대문명이 하늘을 날고 대륙을 달릴 때 무지와 가난의 천길나락에로 떨어지던 락후한 식민지약소국이었다. 그런 약소국이 오늘은 최첨단의 세계에 도전해가는 우주산업국가로 비약하였다. 강력한 우주산업을 창설은 거창한 변혁을 안아오신 위대한 령도자의 애국헌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실용위성의 성과적발사로 온 나라가 기쁨에 넘쳐있는 이 시각 공화국을 오늘과 같은 존엄높은 우주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 주시려 끊임없는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곱이 젖어 든다. 언젠가 장군님께서는 우리 식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강도를 찾아가시던 때를 회고하시면서 그때 식량이 없어 고난을 겪는 인민들을 당장 먹여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전후복구건설시기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떠벌이는 종파분자들에게 기계에서 밥도 나오고 천도 나오고 별의별것

이 다 나온다고 하시던 수령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며 추후도 흔들림없이 귀중한 자금을 현대화에 돌리기로 결심하였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인민들생각에 한공기의 죽도 갈라 잡수시던 그러한 시기에 장군님께서 최첨단 과학기술점령의 어려운 길을 택하시자니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겠는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념원하신 사회주의 강성국가들이 땅위에 기어이 일떠세우시려 험난한 길을 곳곳이 헤쳐 오신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철석의 신념, 눈물겨운 로고속에 마련된 우주산업을 튼튼한 토대가 있어 우주정복의 역사적기적이 창조될수 있겠다. 추억을 더듬어보면 이 땅에서 인공위성이 두번째로 우주에 솟아오른 뜻깊은 그 시각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이 실현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곱을 닦으셨다.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가장 성대하게 경축하는 뜻깊은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쏘올릴것을 결심하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애국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걸고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이다. 그렇듯 고결한 충정과 애국의 지로 온몸을 불태우시며 튼튼한 이 거창하고 어려운 우주강국건설위업을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짧은 기간에 실현하

재들이 설치되어있다. 《광명성-3》호 2호기발사의 완전성공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자랑찬 결실이며 자주적인 평화적우주개발정책을 당당히 행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온 나라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차넘치고있는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쏘올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주제101(2012)년 12월 12일 평양

민족의 존엄 우주에 닿았다



이 다 나온다고 하시던 수령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며 추후도 흔들림없이 귀중한 자금을 현대화에 돌리기로 결심하였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인민들생각에 한공기의 죽도 갈라 잡수시던 그러한 시기에 장군님께서 최첨단 과학기술점령의 어려운 길을 택하시자니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겠는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념원하신 사회주의 강성국가들이 땅위에 기어이 일떠세우시려 험난한 길을 곳곳이 헤쳐 오신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철석의 신념, 눈물겨운 로고속에 마련된 우주산업을 튼튼한 토대가 있어 우주정복의 역사적기적이 창조될수 있겠다. 추억을 더듬어보면 이 땅에서 인공위성이 두번째로 우주에 솟아오른 뜻깊은 그 시각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이 실현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곱을 닦으셨다.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가장 성대하게 경축하는 뜻깊은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쏘올릴것을 결심하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애국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걸고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이다. 그렇듯 고결한 충정과 애국의 지로 온몸을 불태우시며 튼튼한 이 거창하고 어려운 우주강국건설위업을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짧은 기간에 실현하

재들이 설치되어있다. 《광명성-3》호 2호기발사의 완전성공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자랑찬 결실이며 자주적인 평화적우주개발정책을 당당히 행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온 나라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차넘치고있는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쏘올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주제101(2012)년 12월 12일 평양

않고있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만가는 12월에 진행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의 성과적발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한 이 나라 인민의 대경사이다.

자립의 힘으로

무한대한 우주공간에는 수천개의 인공지구위성이 돌고있다. 지구상에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나라도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조선에서의 위성발사는 왜 그토록 세계적관심을 모으는것인가.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 령토도 작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으며 공업발전력사도 길지 않은 조선, 더우기 미국을 위시한 반공화국적세력의 방해와 압력, 갖은 제재를 받는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기의 과학과 기술, 자기의 힘으로 실용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켰으니 세계가 놀라고 진보적인인류가 찬탄을 표시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인공위성발사의 련이온 성공으로 공화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인공위성제작국, 발사국, 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왔다. 이것은 공화국의 국력의 표시, 자주와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이다.

모든 나라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리용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진행한 위성발사때와 마찬가지로 공화국의 위성발사를 악의에 차서 헐뜯고 나설수 없었으니 세계가 놀라고 진보적인인류가 찬탄을 표시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인공위성발사의 련이온 성공으로 공화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인공위성제작국, 발사국, 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왔다. 이것은 공화국의 국력의 표시, 자주와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이다.

모든 나라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리용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진행한 위성발사때와 마찬가지로 공화국의 위성발사를 악의에 차서 헐뜯고 나설수 없었으니 세계가 놀라고 진보적인인류가 찬탄을 표시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인공위성발사의 련이온 성공으로 공화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인공위성제작국, 발사국, 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왔다. 이것은 공화국의 국력의 표시, 자주와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이다.

최후승리를 향해 무섭게 솟구치는 조선의 위대한 승리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성과적으로 발사되어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집한 해외동포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 발사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위대한 대경사이다. 세계는 또 한번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말의 참뜻을 똑똑히 알았을것이다. 인공지구위성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막 부풀어오른다.》(최학철, 중국 베이징시에서 사는 동포)

《이런 조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의 성공은 진보적 인류에게는 용기를 주고 적대세력에게는 강력한 철추를 내린 대장기이다. 적대세력들은 조국의 힘이 강화되는것이 무서워 위성발사도 미사일발사라고 우겨대고 저들은 무슨짓이나 다 하면서도 조선이 무엇을 하면 큰 일 난것처럼 고이대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있다. 뉘나 뉘나 해도 위성발사에 성공하였으니 멋맞고 궁지가 있다.》(주영일, 재로씨야동포)

《위성이 성과적으로 발사되어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한것은 조국인민들은 물론 우리 총련동포들에게도 대경사로 된다. 지난 4월에 실페보도가 나간지 8개월만에 다시 발사하여 성공시킨것은 세계력사에 없는 일이다. 오늘과 같이 추운 겨울철에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여 성공하였다는것은 조국의 우주기술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조국의 국력을 과시하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정무현, 총련조선신보사 기자)

평양은 지금...

고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장하다 우리를 고무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것 같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1돐이 되여오는 지금 그이의 령전에 드리는 최상의 선물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최대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날은 저물어 퇴근길에 오를 사람들이란 버스와 전동차에서도 들리는것은 온통 위정발사이아기였었다. 전동차안에서 우리와 만난 평양화력발전전원합기업소 로동자 김정일은 《우리는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납니다. 위성발사소식은 이제 우리 조국의 모든 일이 더 잘되고 우리의 앞날이 대단하리라 믿는 심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학생교복차림의 청년들이 발을 방랑 구르며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발걸음》 등 노래에 맞추어 씩씩한 춤동무를 보이고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이라고 쓴 커다란 기발이 무도회장의 부관에서 펄펄 휘날리고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2학년 장명철에게 이야기를 청하였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는 장군님의 창조적 철학이 이렇게도 심비스러운 결과를 이룩할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 마음도 《광명성-3》호위성도 함께 우주를 날으는 심정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담아 올리는 힘찬 노래소리가 모란봉기술에 멀리멀리 메아리쳐 갔다. ... 발걸음 발걸음 더 높이 울려 퍼져라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 최척척

《역시 조국은 위대한 나라이다. 내국들의 온갖 압력과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그것도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2월에 세상이 보란듯이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렸으니 이 력사적인 순간을 국방위원장님께서 보시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오늘의 승리는 바로 김정원수님의 담력과 배짱의 승리, 최후승리를 향해 무섭게 솟구치는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이다.》(윤길상, 재미동포)

《내가 알기에도 위성발사란 고도의 기술과 담력을 요구하는 거창한 사업인

이 정말 뜻깊은 해이다. 조국인민들과 과학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조윤해, 범민련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 의장)

《인민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원수님께서 장군님께서 1돐을 맞으셨을 때, 더없는 충정의 선물로, 조국인민들에게는 더없는 행복의 선물로 위성발사성공을 안겨주신것이라고 생각한다. 4월에 이어 불과 여덟달만에 다시 쏘아올려 멋진 성공을 세계에 과시했으니 정녕 오늘처럼 조선민족의 긍지감을 리질듯이 자강한적은 없었다.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우리의 김정원수님께 제충동포들의 마음까지 합쳐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싶다.》(강지현, 중국 단둥시에서 사는 동포)

《이번 발사성공으로 우리 민족은 새 힘과 용기, 긍지를 얻게 되었다. 앞으로 보다 위황환란한 김정원수님들의 레일을 눈앞에 보는데는 더없는 영광이다.》(서정국, 중국에서 사는 동포)

《일본은 우리 위성을 요격한다고 오기나와에 패트리오트발사대까지 설치해놓고 떠들었는데 하늘만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다. 역시 조국은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강국이다. 이번엔 세계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담력과 배짱을 보고 놀랐을것이다.》(박동수, 재일동포)

우리와 만난 김정일상제관인 4.15문화창작단 작가 백보희선생은 《광명성-3》호 2호기발사의 완전성공은 주제100년사의 위대한 승리이며 선군정치의 생활력을 과시하는 특대사변이라고 하면서 《인공위성의 발사소식을 듣고 제일먼저 떠오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었습다.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려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을 강리 불태우신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이 납니다. 이 자랑찬 보고를 들으시

본사기자 홍범식



